



박소현의 섹.시.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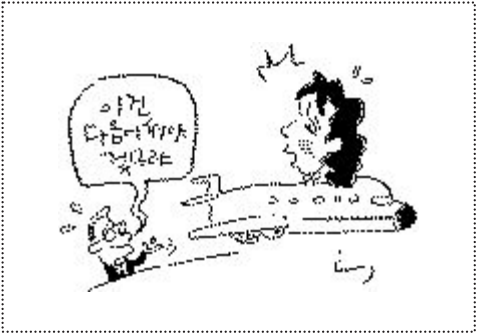
남편은 기러기 아빠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호주에서 2년째 살고 있다. 처음에는 애 입이나 튀우자고 딱 1년간 계획하고 간 유학길이었지만 도저히 1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계산이 나왔고 결국 2년째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4년을 버티고 싶다는 바람이 크다. 아 니 여기서 더 버틸 수 있다면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버티고만 싶다.

사실 한국에 살 때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부간의 정이라고는 없이, 아이의 엄마 아빠로만 산 세월이 몇 년이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갈라야 하나를 고민하던 무렵에 아이가 먼저 유학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기러기 가족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술 마시고 바람피울 수 있게 된 것이 좋았고, 아내는 아내 대로 남편의 그런 꼴을 안보고 살 수 있으니 좋았다. 그런데 떨어져 산지 2년을 넘어서 얼마 전부터 없던 정이 생겨났다. 눈만 마주쳐도 화가 나던 얼굴인데, 어쩌다 화상통화를 할 때면 얼굴이 축나 보이는 것이 괜히 마음에 쓰였다. 통장에 들어와 있는 생활비를 확인할 때면 풍클하기도 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조금 그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가끔 통화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다정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친정 아버지 칠순을 맞아 아내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되었다. 아이는 학교 때문에 못 오고 혼자만 들어온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먹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첫날은 다행히 여동생 차를 얻어타고 친정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남편과 돌이서만 있을 기회가 없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남편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조금 애똥한 마음이 되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2

년 전 헤어질 때 서먹했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라 다정한 척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굴자니 그것도 이상했다. 아내가 특히 신경 쓰는 것은 부부관계였다.

떠나기 전에도 몇 년간 거의 부부관계가 없긴 했지만, 그때는 너무 미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으니 다시 해야 할

2년만에 만난 기러기부부 며칠 망설이다 못한 잠자리 공항서 본 남편의 문자 "비아그라 다음에 써야겠네"

것도 같은데, 막상 하러니 그동안 안하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남편 마음이 어떤지 속 시원히 알 수 없으니, 하자고 먼저 털어놓기도 그랬다. 괜히 망신이나 당하는 거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며칠이 흘렀다. 잠자리

안하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에 들 시간이 되면 그녀가 먼저 슬그머니 비어있는 아이방에 들어갔고, 남편도 슬그머니 안방으로 사라졌다.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아직 마음이 없는 모양이라고, 아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드디어 아내가 떠나는 날이 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가고, 친구부부라도 만났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아내는 속으로 이대로 가야 하나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내색은 않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까지 바래다 준 남편은 형식적인 인사 몇 마디를 끝으로 돌아섰고, 그녀도 돌아섰다. 그런데 비행기에 오르기 전 꺼두려고 꺼낸 핸드폰에 남편의 문자가 도착해 있다.

"비아그라는 다음에 써야겠네."

처음에는 가슴이 좀 아렸다. 남편도 나처럼 내심 원하고 있었는데 표현을 못한 모양이구나. 그런데 잠시 뒤에 생각해보니 웬 비아그라가 싶다.

과연 마누라와 멋진 밤을 보내기 위해 일부러 구한 건지, 아니면 다른 여자와 쓰다 남은 건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가졌던 연민이 확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니까.

검색절정 키워드

이번 주 잇달아 들려오는 결혼소식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됐다.

노홍철 개그맨 김수용(41)이 스타트를 먼저 끊었다. 김수용은 지난달 31일 대학원에서 만난 8살 연하의 신부와 결혼식을 올렸다. 팬과 스타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같은 날 개그맨 김시덕(27)도 미모의 스텔러디스과 결혼식을 올리면서 개그맨들의 결혼 러시에 동참했다.

노경은 아나운서와 공개적인 만남을 가져왔던

국민 MC 유재석 "저 드디어 장가갑니다~"

개그맨 유재석도 결혼 발표를 했다. 유재석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갖고 7월 6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해 네티즌의 부러움을 샀다.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와 '슈퍼 팡팡' 김미현의 결혼 소식도 들려왔다. 연인 사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두 사람은 12월 12일 결혼식을 치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스포츠 스타 커플이 탄생하게 됐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네티즌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이 나오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계

속되고 있다. 사망설이 끊이지 않자 지난 3일 미국 부부는 정래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이 사실 무근이라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여대생 사망설도 네티즌을 바쁘게 했다. 훗날 시위 도중 여대생이 전경의 강경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로 인터넷이 뜨거웠다.

이에 대해 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훗날시위 참가 여대생 사망설'을 인터넷에 최초로 유포한 혐의에 40대 최모씨를 검거했다.

/김유미기자 wool@kwangju.co.kr



개그맨 유재석이 기자회견을 갖고 7월 6일 결혼 날짜를 발표했다.

Advertisement for '17th Light Day' (제17회 光日盃)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a tournament.

Advertisement for 'Baduk Soosik' (바둑소식)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a Go player's performance.

Advertisement for 'Living Sens' (리빙센스)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a yoga class.

Table of horoscop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 various zodiac signs.

Advertisement for 'Derma Plast' (더마플라스트)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skin care.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English (굿모닝 잉글리쉬) with a lesson on phone bill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Japanese (오하오우 니혼고) with a lesson on daily greeting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Chinese (니하오 쑹구위) with a lesson on identifying a teacher.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Korean (한자 이야기) with a lesson on the character '馬'.